

월요논단



현 해남
제주대 명예교수

돈 버는 농업인, 못 버는 농업인

당도 높은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는 뛰어난 실력자라는 증거다. 농장 관리와 나무를 가꾸는 기술과 비료를 과학적으로 선택하는 훌륭한 농업인이라는 뜻이다. 소득도 따라온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농가는 농장 관리도, 기술도 허술하다는 뜻이다. 감귤 가격을 결정하는 당도는 여러 요인으로 높아진다. 그중에 햇빛을 잘 받는 것이 최고다. 햇빛을 잘 받아들이는 비료도 사용해야 한다. 결국 기상 조건, 나무 사이 간격, 절정, 비료 사용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품질이 높아지고 돈도 번다.

서귀포 감귤이 제주시보다 당도가 높다. 기술이 아니라 기상 조건이 좋은 덕분이다. 감귤이 익는 가을에는 편서풍 편 현상으로 제주시 지역은 흐려도 성판악만 지나가면 햇빛이 비친다. 이런 기상에서도 소득이 낮다면 조건이 좋아도 공부 못하는 학생과 같다. 약조건의 제주시 지역 농업인이 감귤 소득이 높다면 정말 훌륭한 농업인이다.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전정 기술도 중요하다. 전정만 잘해도 햇빛이 나무 골고루 들어와서 당도에 도움이 된다. 사과 등 과수 전정은 휴면기인 낙엽이 졌을 때만 아니라 열매가 달렸을 때도 햇빛을 잘 받는 것이 최고다. 햇빛을 잘 받아들이는 비료도 사용해야 한다. 결국 기상 조건, 나무 사이 간격, 절정, 비료 사용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품질이 높아지고 돈도 번다.

할을 해 당이 만들어진다. 마그네슘과 햇빛이 부족하면 제아무리 철, 아연, 인산이 많아도 허당이다. 70년대 일본 토양에 인산이 부족할 때는 마그네슘의 활성을 높이기 위해 인산시비를 권장했었다. 그때 들어온 기술을 50년 지난 지금도 맹신한다. 골분과 고가인 제일인산 가리가 당도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농가도 많다. 스마트폰, 컴퓨터로 계산하는 시대에 주판을 고집하는 아둔한 생각이다. 도의 감귤 정책에 따라 중문농협 등 농협에서 원지정비(성목이식)를 추진하고 마그네슘이 충분한 비료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햇빛을 사냥해서 당도를 잡기 위한 것이다. 돈 버는 감귤 농가와 못 버는 농가의 차이는 햇빛을 어떻게 사냥해서 감귤 열매로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사설

원희룡·오영훈, 정파 떠나 현안 공조하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과 항공우주산업 육성은 오영훈 도정의 핵심 정책이다. 신 성장 동력으로 삼아 미래의 제주경제를 견인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타 지자체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해 육성키로 결정하면서 추진동력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최근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를 지정해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국가산단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취지다. 지방 신규단지에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허가 신속처리 등 각종 패키지 지원책이 적용된다. 그런데 전남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전복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후보지로 각

각 지정됐다. 제주도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들과 겹치면서 추진에 한계를 노출하게 됐다. 문제는 정부의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알고 있었던 제주도가 국가산단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가산단 지정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데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지사를 연임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국가산단 벨트 조성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설사 제주도가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원 장관이 제주도와 교감을 통해 신청을 유도했어야 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오영훈 도지사과 원희룡 장관의 꺾그러운 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제주 경제 미래를 담보할 첨단산업 육성까지 이것저것 보아야 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주미래 발전을 위해 공조와 견제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

열린마당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이 상수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는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에 산불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산불 예방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는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

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는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이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처럼 몇 안 되는 주의사항만 지킨다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시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산불을 발견 시에 119에 신고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끈다.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한다. 시간이 없을 경우 낙엽, 나뭇가지 등 탈것이 적은 곳을 골라 뛰어내린 후 얼굴을 가리고 불길에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산림자원은 우리뿐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므로 우리 모두 산불 예방을 실천하시길 당부드린다.

뉴스-in

농정 문제 실마리 토론회로 해결

도, 오는 9월까지 진행 계획 “크루즈 문제 조치 취하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축산 식품 현안 해결을 위한 실마리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어 주목.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실마리 토론회는 현재 풀리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농정 현안에 대해 내부 직원, 전문가, 관련자 등이 함께 참여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창출하는 것으로 내부 토론, 열린 토론, 현장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오는 9월까지 계획.

제주자치도는 이 토론회를 통해 농지 불법 임대차 문제, 세척 월동무 농업용수 사용,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 새로운 논리 개발, 농촌인력 부족 문제, 농민수당·여성 농업인 행복 이용권 등 신청 편의 제공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크루즈 입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들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도정은 강정민군복합항 크루즈 입항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 이들은 “도는 크루즈 입항이 가져올 환경, 생태계 파괴, 기후악화 등의 역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있다”며 “특히 유네스코 지정 연안호 보호구역에 대한 피해 가능성은 물론 크루즈 산업의 비도덕성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이어 “크루즈 입항에 따른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공개적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주 환경과 도민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백귀탁기자

뱃길·하늘길 늘어 제주관광 활기 되찾나

제주관광이 모처럼 반가운 소식 접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중단됐던 크루즈선이 제주에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크루즈선이 제주에 온 것은 크루즈 뱃길이 끊긴 지 3년여만 이어서 남다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제주관광이 위축된 상황에서 국제크루즈선이 제주를 찾으면서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독일 국적 2만9000t급 크루즈선인 아마다야호가 제주항에 입항했다. 크루즈선이 제주를 찾은 것은 2019년 10월 이후 3년 5개월만이다. 아마다야호는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등 다국적 승객 500여명과 승무원 300여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일에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항관 광미항에 영국 국적 1만1500t급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

세스호가 입항했다. 이 크루즈선은 승객 1500여명과 승무원 1100여명 등 2600여명을 태우고 입항, 9시간가량 머문 후 제주를 떠났다. 제주관광이 봄철 성수기를 맞아 기지개를 켜 전망이다. 올해 제주 입항을 예약한 크루즈선은 제주항 22척, 강정항 28척 등 총 50척에 이른다. 이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 12만명이 제주를 찾을 예정이다. 제주와 해외를 잇는 하늘길도 넓어진다. 태국 방콕과 싱가포르, 일본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에 이어 이달 중국 시안·상하이, 홍콩 직항 노선이 다시 운항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곤두박질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크루즈선이 잇따라 제주를 찾는 것을 계기로 제주관광이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강우석(네오콜) 아버지 **신천강공** **승호(향년 65세)**께서 서기 2023년 3월 19일 09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3년 3월 20일(월요일)
▶ 발인일시: 2023년 3월 21일(화요일) 오전 10시
▶ 발인장소: 하귀능협장례식장 101분향실
▶ 장 지: 양지공원→어음리 선영

부 인 **홍옥순**
아 들 **강우석**
우 진

※ 연락처 : 홍옥순 010-4813-5088
강우석 010-5051-7845
강우진 010-4546-784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전주이씨 덕옹(향년 9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리며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3월 20일

아 들 **이현우**
며느리 **임순임**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경주김씨 양녀(향년 98세)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리며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3년 3월 20일

며느리 **김현주**
아 들 **오재원** **이선임**
오재호 **김효순**
딸 **오숙자** **김춘보**
오무순 **강홍우**
손 **오정현**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점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 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바다조망 건축가능)
5 월명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섬 조망 180평 (주택 건축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재 (별장 건축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를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서귀포시정소식

2023년 어르신 통합돌봄 방문운동지도 서비스 안내

- 개시 일: 2023. 3. 2.
- 지원기간: 3개월(최대 1년)
- 지원대상: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 ① 최근 3개월 이내 퇴원한 어르신(입퇴원 확인서)
 - ② 장기요양 등급자 (판정 유효자)
 - ③ 장기요양 등급의 A, B 판정자 (2022. 1. 1. 이후 판정자)
 - ④ 기타 사군 구청장 인정자
- 지원내용: 물리치료사가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 환경, 건강 상태를 맞춰 운동방법 교육
- *인당 예산 범위 내 운동에 필요한 용품(세라밴드 등)지급 가능
- 문의사항: 서귀포시통합돌봄지원센터 ☎ 064-762-9492

서귀포국민체육센터 4~5월 수영 프로그램 운영 알림

- 접수기간: 2023. 3. 24(금) ~ 3. 26(일) / 선착순 모집
- 운영기간: 2023. 4. 4(화) ~ 5. 31(수) ※매주 월요일 휴관, 공휴일 휴강
- 운영장소: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중문)
- 운영내용

구분	인원	운영시간(50분)	사용료
동북 회원	초급새벽반	20명	06:30 ~ 07:20 성 인 60,000원
	중급새벽반	20명	06:30 ~ 07:20 성 인 60,000원
	초급오전반	20명	09:00 ~ 09:50 성 인 60,000원
	초급어린반	20명	17:00 ~ 17:50 어린이 30,000원
	초급저녁반	20명	19:00 ~ 19:50 성 인 60,000원
	중급저녁반	20명	19:00 ~ 19:50 성 인 60,000원

- 신청방법: 인터넷(http://stadium.seogwiposports.org/) 신청
- 준비물: 개인물품(수영복, 수영모, 물안경, 수건, 개인 물)
- 문의사항: 서귀포국민체육센터 ☎ 064-739-0363, 0368

서귀포예술의전당 3월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알림

- 공연명: 벨레주 트리오 '비기'
- 공연일시: 2023. 3. 29(수) 19:30
- 공연장소: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 관람료: 전석 5천원
- 입장연령: 8세 이상 관람가
- 티켓오픈: 3. 21(화) 10:00 ~ / 서귀포시 E-티켓
- 공연문의: 서귀포예술의전당 ☎ 064-760-3365